

2020년 시군의회 의장단 공무국외출장 보고

I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20. 1. 14. ~ 1. 20. (4박7일)
- 출장지역 : 두바이, 아부다비, 이스탄불
- 출장목적
 - 의료복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광자원 활용 등 벤치마킹
 - 주요 선진국의 도시계획 및 대중교통시스템을 비교분석
 - 기타 시군의회 의정 수행능력 강화
- 출 장 자 : 2명(의장 최석찬, 운전7급 박정민)
 - ※ 15개 시군 32명(의장15, 의원1, 직원16)

II 출장일정

일 자	지 역	시간	연 수 일 정
[제1일] 1.14(화)	인천	23:50	▷ 인천 공항 출국
[제2일] 1.15(수)	두바이	05:05 12:00	▷ 두바이 도착하여 가이드 미팅 [두바이 도시계획 및 대중교통 벤치마킹] ■ 공식일정 : 두바이 헬쓰케어시티 방문 [두바이 도시계획 및 대중교통 벤치마킹]
[제3일] 1.16(목)	두바이 아부다비	09:00 13:00	[아부다비 문화탐방] [아라비아 문화체험]
[제4일] 1.17(금)	아부다비 두바이	09:00 13:00 16:00	[아부다비 문화탐방] ◆ 도심 속 웅장한 모스크 그랜드 모스크 방문 ▷ 두바이 공항으로 이동 ▷ 이스탄불 도착하여 가이드 미팅

일 자	지 역	시간	연 수 일 정
[제5일] 1.18(토)	이스탄불	09:00 12:00 18:00	<p>■ 공식일정 : 정부소속 사회복지기관 Darulaceze 방문</p> <p>[이스탄불 관광문화 벤치마킹]</p> <p>■ 공식일정 : 재래시장 그랜드 바자르(Grand Bazaar) 방문</p>
[제6일] 1.19(일)	이스탄불	09:00 12:00 20:00	<p>[이스탄불 관광문화 벤치마킹]</p> <p>◆ 이스탄불 교통, 상업, 관광의 중심 탁심 광장</p> <p>◆ 아시아와 유럽의 구분경계 보스포러스 해협 방문</p> <p>▷ 이스탄불 출발</p>
[제7일] 1.20(월)	두바이 인천	01:20 03:30 16:50	<p>▷ 두바이 도착(환승)</p> <p>▷ 두바이 출발</p> <p>▷ 귀국</p>

Ⅲ 방문국가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중동 아라비아 반도(아라비아 만, 사우다, 카타르, 오만과 접경) ○ 면 적 : 83,600천km²(두바이 - 4,114k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바이는 UAE(아랍에미리트) 내 7개 토호국 중 두 번째 규모 ○ 기 후 : 고온 다습한 사막기후(5~10월 35~45도, 11~4월 15~35도) ○ 인 구 : 1,075만명(두바이는 120만명) ※ 자국민 11.6%, 외국인 88% ○ 수 도 : 아부다비(Abu Dhabi) ○ 민 족 : 아랍계, 이란계, 인도계 및 기타 ○ 언 어 : 아랍어(공용어), 영어(상용어) ○ 종 교 : 이슬람교 96%(수니파 85%, 시아파 15%), 기독교 및 힌두교 4%
--	--



터 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아시아대륙의 서부에 위치하며, 유럽대륙 동남부와 연결 ○ 면 적 : 779,452km²(한반도의 3.5배) ○ 기 후 : 내륙지방은 대륙성 기후이며, 해안지방은 해양성 기후 ○ 인 구 : 8,081만명(2017년 기준) ○ 수 도 : 앙카라(Ankara) ○ 민 족 : 터키인, 쿠르드인(약 1,200-1,400만명으로 추정), 아랍인(50만명), 아르메니아인(5만명), 기타 그리스인, 유대인 등 ○ 언 어 : 터키어 ○ 종 교 : 이슬람교(99%)
------------	--

IV 주요 수행내용

1.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 Dubai Healthcare City

□ 시설 현황

- 두바이 헬스케어시티는 세계 최초의 의료 중심 자유무역지대이자,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의 보건의료 중심지구로 고품질 의료 서비스 제공 및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산업 구축,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방문객 유치 및 의료관광산업 확대를 목표로 2002년에 설립되었음.
- 두바이 헬스케어시티는 의료분야, 교육 및 연구분야, 투자분야, 규제분야로 구성되어 하나의 독립된 의료특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두바이가 탈석유, 산업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의료 관광(Medical Tourism)을 집중 육성하고 UAE 정부가 단순화된

라이선스 획득, 행정편의, 비자처리 등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함.

- UAE는 중동 지역 내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 가장 부유하며,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어서 많은 글로벌 기업이 지역 본부를 두고 있으며, 두바이의 높은 외국인 인구 비중과 소득 수준은 고품질 의료서비스와 특허등록 약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두바이 헬스케어시티는 질병치료에서 나아가 웰빙과 예방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두바이헬스케어시티 당국(DHCC)에 따르면, 특히 불임치료, 성형수술, 치과치료 서비스가 인기가 높다고 함.
- 국제공항 접근성이 높고 호텔, 쇼핑몰이 인접해 있으며, 특히 2020 두바이 엑스포를 앞두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호텔, 교통 등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으로 의료관광허브의 자리를 확고히 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의료관광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며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으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그 규모가 2025년 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산업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로 높이 평가되고 있지만 두바이, 중국등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의료장비 및 시설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각국의 추격을 받고 있다.
- 헬스케어시티는 기존 질병치료에서 이제는 불임치료, 성형수술 등 예방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다. 일례로 2019년 7월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 의과대학(MBRU)에서 한방치료 및 진료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도 했다.

- 이처럼 세계 의료관광산업의 성장은 우리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의료기기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안으로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의 피드백을 강화하여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지속적인 현지 병원 진출 및 의료기기 납품, 홍보를 통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 관련사진



2. 터키 그랜드 바자르 : Grand Bazaar

□ 시설 현황

-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은 육상 실크로드의 종착지이자, 지중해를 거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제노바로 가는 해상 실크로드의 연결지점이었기에 자연스럽게 동서양의 문물들이 유통되었고 다양한 문화와 문물교류가 일어나 지금의 그랜드 바자르가 탄생하였음.
- 그랜드 바자르는 전통시장으로 터키어로 '덮여있는 시장'이라는 의미의 카파르 차르쉬(Kapar Carsi)로 불리며 1455~1461년 술탄 메메드 2세의 명에 의해서 건축되어 16세기 술탄 술레이만 1세 통치 시기의 대대적인 확장을 비롯하여 여러 번의 증·개축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음.
동화작가 안데르센이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한 후 “이곳에 가면 그랜드

바자르를 꼭 들러 봐야한다.” 고 말한 것처럼 지금은 관광객들이 빠뜨리지 않고 찾는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음.

-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실내 시장으로, 현재 60여 개의 미로 같은 통로에 5,000여 개의 상점이 있으며 2개의 주요 통로 끝에 있는 입구 4개를 포함하여 모두 20여 개의 입구가 있음.

시장에는 금, 은 세공품을 포함한 각종 보석류, 피혁류, 카펫, 향신료, 형형 색색의 도자기와 기념품을 포함한 각종 공예품과 특산품 등을 판매하고 있고 있는데 이 중 보석류 상점이 1천100여개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을 카펫상점이 차지하고 있음.

-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상점들의 상품 진열 수준이 높아 천정이나 벽등 모든 공간을 활용해 작품 전시장이란 느낌이 들 정도로 세련미를 뽐내고 있고, 이러한 정성으로 매일 25만에서 40만의 방문객들로 넘쳐남.

□ 시사점

- 그랜드 바자르는 보석과 가죽(카펫)이 유명한데 품목마다 판매하는 구역을 달리하는 한편, 수준 높은 진열 수준으로 마치 전시장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만물상을 연상케하는 전통시장도 좋지만 ‘어느 시장에 가면 뭐가 유명하다’ 이렇게 각인될 수 있는, 그 시장만의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또한 전통시장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먼저 부족한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 고객쉼터 등 편의시설을 늘리고, 여름철 침수, 노후시설로 인한 화재의 위험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보수를 하여 이용자들의 편리와 안전이 우선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 그 다음 시장별 특색을 살린 스토리텔링등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인근 관광지, 축제, 문화공연을 연계하여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다시 찾게 해야 한다. 단, 전통시장과 연계하는 문화축제나 체험은

일회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시너지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혁신성장인 상인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상인의 자생력을 높여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 관련사진



3. 터키 사회복지기관 다룰라세제: Darulaceze

□ 시설 현황

- Darulaceze(다룰라세제)는 1985년 '압둘라 마한'이라는 술탄(왕)의 개인 사유재산에 지은 것으로 어린이 고아원 시설과 노인 양로원 시설이 함께 있는 복지시설임.
- 시설거주자는 노숙자, 고아, 노인등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 미용실, 목욕탕등의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규모는 2만 8천여평이고 9개동의 시설로 구성되어 아이들과 유아, 스스로 활동을 하면서 보조가 필요한 클라이언트, 병동,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여자시설등 분류하여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거주자 560여명에, 이들을 위한 종사자

는 500여명 가까이 되어 거의 1:1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Darulaceze(다룰라세제)는 외부기부금 100%로 운영되며 부동산이나 건물 수익의 임대료 등으로 들어 온 기금은 기부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동산에 재투자해서 재정 안정에 기여함. 정부 지원 없이 기업이나 국민이 내는 기부금으로만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체계에서 터키의 돌봄과 나눔의 문화 발전을 엿볼 수 있음.
- 단순 시설보호 차원을 넘어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무언가를 배우고 직접 공예품등을 만들어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여 수용자들의 자기계발, 사회적응능력 유지에 힘쓰고 있음.

□ 시사점

-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18년 14.3%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은 20%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불과 7년밖에 소요되지 않아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에 달해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로 가장 높으며 복지예산 규모는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거의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비해 종업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시설 운영에 대한 비용을 100% 외부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Darulaceze(다룰라세제) 신선한 충격일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기부 문화가 예전보다는 많이 정착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복지시설을 혐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인식은 많이 남아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며 상생하는 입장에서 바라

볼 수 있을 때 기부문화가 정착되고 사회복지시설의 재정능력이 강화 되면 자연스럽게 운영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 Darulaceze(다룰라세제) 시설보호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단순한 생활 보호의 수준과는 다르다. 시설거주자의 나이, 활동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신체적으로 불편한 노인이지만 활동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배우고, 직접 만드는 생산 활동도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는 수용인의 신체적 자립과 정신적 자율을 향상시켜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또한 Darulaceze(다룰라세제)는 아동보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이 함께 있어 서로 어울리게 함으로써 아이들은 노인들에게 예절과 사회성을 배우고, 노인들은 정신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시설과 유자격자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가능하다. 더불어 시설을 지역과 단절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개방하여 지역의 복지자원으로 인정받아, 지역사회와 상생·공존하는 사회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 관련사진



이번 연수를 통해 세상은 넓고, 배울 것도 많다는 것을 경험했으며,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은 강원도 및 동해시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 연수단은 아랍에미리트, 터키를 대상국으로 하여 연수를 하였다.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는 두바이는 세계 최고층 빌딩, 세계 최고의 쇼핑몰, 놀이동산, 인공섬 등으로 연간 1억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산유국이지만 다가올 원유 고갈에 대비해 관광 산업분야에 많은 연구와 투자를 통해 사막이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개성있고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빌딩들을 보며, 우리시도 보다 체계적이고 과감한 도시계획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 중 하나인 이스탄불의 그랜드바자르는 대규모 재래 시장으로 카펫, 그릇 등 터키의 다양한 전통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시장 라인별 특성에 맞게 간판이 통일돼 있으며 15세기에 만들어졌다는 아케이드(지붕)는 전통 문양이 그려져있어 박물관에 온 기분이 들게 했다. 우리 시 동쪽바다중앙시장 아케이드도 디자인까지 고려하여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방문했던 나라들은 모두 그들이 가진 자연과 문화유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우리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끝으로 무사히 연수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수 보고를 마치고자 한다.